



NEWS

|| ▾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지원 70% 혜택

연합뉴스

< | 사 대통령직 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알 >

Q U

뉴스홈 | 최신기사

<프로야구> 두산-삼성 PO 핵심어는 '발아구'

송고시간 | 2008-10-12 11:22

 장현구 기자
기자 페이지

<프로야구> 두산-삼성 PO 핵심어는 '발아구'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16일부터 시작되는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 간 프로야구 플레이오프(PO.7전4선승제)에서 최대 화두는 바로 '발아구'다.

삼성 롯데와 준플레이오프에서 시종일관 '경험'을 무기로 상대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파죽의 3연승으로 PO에 올랐다. 큰 경기 경험은 양팀의 명암을 가른 준플레이오프의 키워드였다.

GS SHOP
특급 혜택 받으세요! ★
(5,000) (10,000)

PO를 관통할 핵심어는 '발아구'다. 두산의 최대 강점인 '죽공'을 삼성이 선방할 수 있는나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문 두산 감독과 선동열 삼성 감독은 2004년 PO, 2005년 한국시리즈에 이어 세 번째로 격돌한다.

큰 경기에서 자주 맞붙어 상대팀을 잘 아는데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 많아 경험은 큰 변수가 못 된다. 특히 이종욱, 고영민, 김현수 등 두산 상위 타선 3인방은 김경문 감독과 함께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경험도 쌓고 정규 시즌에서 이루지 못한 우승 한(恨)도 풀었다.

두산과 삼성은 여러 부문에서 많이 다했다. 정규 시즌에서 선발 투수보다는 상대적으로 막강한 불펜에 의지했고 내외야에서 탄탄한 수비를 펼쳤다.

그러나 공격에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 두산은 이종욱, 고영민 등 발 빠른 주자가 누상에 나간 뒤 김현수, 김동주, 홍성흔 등 중심 타선의 한 방에 의존하는 조직적이면서 유기적인 야구를 한다.

정확성이나 장타력에서 삼성은 두산 타자들보다 떨어지진 않지만 주루 센스가 넘친 타자가 없어 창조성은 떨어지는 편이다.

이종욱이 47개, 고영민이 39개, 오재원이 28개를 훔치는 등 두산은 팀 도루가 189개로 8개 구단 중 가장 많았다. 삼성은 이종욱보다 약간 많은 59개에 그쳐 두산에 130개 이상 부족했다.

큰 경기에서는 상대의 견제가 더욱 심해 '그린 라이트'(벤치 지시 없이 도루하는 선수)가 도루를 감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두산 주자들의 한 베이스 더 가는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는 도루 못지않게 위협적이다.

단타가 2루타가 되고 2루타가 3루타로 바뀌는 두산 주자들의 창조적인 주루 플레이는 삼성 야수진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삼성 수비진의 행동이 더욱 민첩해질 전망이다.

삼성은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김주찬과 이인규 등 상대 발 빠른 1-2번 타자를 잘 막아 12-3 대승을 거뒀지만 2-3차전에서는 두 선수에게 각각 10타수5안타, 8타수5안타씩 허용하며 자주 누상에 보내 고전의 빌미를 만들었다. 또 도루도 각각 1개씩 허용했다.

   1010회
모토 당당결과 9 12 15 25 34 36 + 3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도 불합격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무 많은 민주주의"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브,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이나 국경 넘었다 ...



대신 조성환, 이대호, 카림 가르시아 등 중심 타선을 철저히 봉쇄한 덕분에 승리를 누을 수 있었다.

하지만 두산 중심 타선은 롯데보다 경험이 많기에 누상에 주자가 나가면 찬스를 놓칠 확률은 낮다.

이 점을 잘 아는 삼성의 안병마님 진갑용은 11일 준플레이오프 MVP로 선정된 뒤 "PO에서는 두산 1-2번 타자들을 묶는데 더 집중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거함 롯데를 비교적 쉽게 침몰시킨 삼성은 이제 본격적인 싸움을 준비 중이고 두산은 삼성과 세 번째 대결에서 기필코 설욕을 노리고 있다. 발아구의 성패에 따라 양팀의 운명도 결정된다.

cany990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10/12 11:22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열뚝뚝...누가 학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 수송헬기 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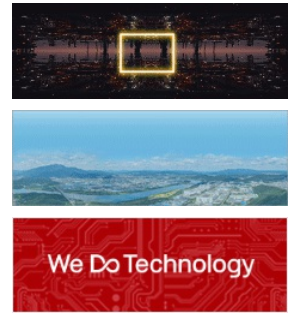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마스크만 빼고...'사회적 거리두기' 2년1개월 만에 사라진다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엄중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145

2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66

3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61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조기등판론 속 활동 재개 예정?
56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40

뭐하고 놀까? #홍→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미디어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개인사/제휴문의